

F I K A 대표 단

제22차 UIA 총회를 다녀와서

Attending the 22nd UIA Meeting

feature

UIA는 세계 97개국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고 백만이 넘는 건축가를 대표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UIA총회(Assembly, 대회)라고 부르는 UIA Convention and Congress는 글자 그대로 컨벤션과 총회(congress 혹은 plenary meeting)로 구성되어 있으며 3년마다 한번씩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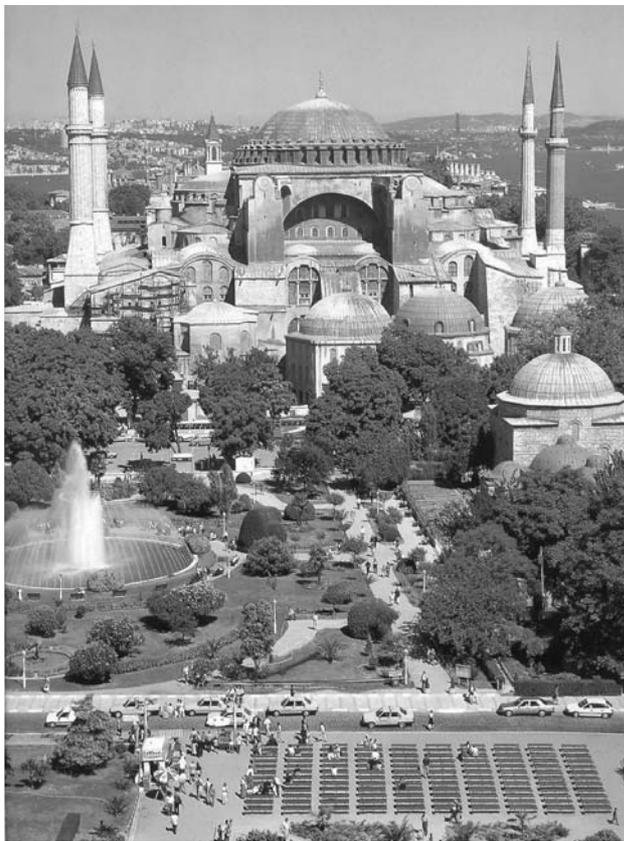
이stanbul은 유럽과 아시아 두 도시에 걸쳐 있는 세계 유일의 도시이며 5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로 사람이나 문물이 모두 동양과 서양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시내에는 세계 8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소피아성당(Aya Sophia, 최초건설 532~537년), 지하 저수조인 시스틴, 볼루 모스크, 톱가피 궁전 등 흥미로운 건축물도 많고 일대에는 그리스신화를 비롯하여 로마의 유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또 성경에 나오는 유적이 수도 없이 많아 성지순례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곳이다.

예상했던 대로 장소의 역사성과 매력 때문에 많은 건축가와 학생들이 컨벤션에 참여하여 총 등록자수가 27,000명을 넘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많은 건축인이 참석하였지만 우리나라도 많은 건축인들이 참여하여 컨벤션을 둘러보고 이 일대의 고적과 건축물을 답사하였다. FKA(한국건축단체연합, UIA 공식 가입단체)의 현 회장인 윤석우 건축가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건축학회에서는 이리형 회장, 임창복 부회장, 김자호 부회장, 김영하 부회장을 비롯하여 이승복, 이준석 교수 등 모두 20여명, 건축사협회에서는 이의구 전임회장, 이근창 부회장, 김지덕 국제위 자문위원, 심재호 국제위원장, 이영수 이사, 최재희 국제위원 등 6명이 참여하였고, 새건축사협회의 최관영 회장도 참여하였으며, 건축가협회에서는 장석웅, 김한근, 황

일인, 오기수 등 전임회장들, 김 원 명예이사, 변 용 수석부회장, 이상림 재
정위원장, 우경국 이사 등 9명 이외에 조성중 국제담당 부회장이 UIA 제 4
지역 이사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김창수 전임 건축가협회 부회장과 건축가
협회의 감사인 정진원 교수가 주관한 고려대학 팀도 이정덕, 주남철 두 분
교수와 천병욱 선배를 모시고 모두 2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또 홍익대 건축
도시 대학원장인 정명원교수가 주관한 박물관학회 회원 20여명도 뒤 늦게
참여하여 총 80여명이 UIA컨벤션과 건축기행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서울시와 자매도시인 앙카라를 방문하고 세계 대도시 시장 포럼에
초청을 받아 이스탄불을 방문한 이명박 서울시장의 때 맞추어 개장한 청계천
전시회를 참관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건축인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자유로운 담소를 나누었던 일은 예상하지 못했던 소득이었다.

지난 2002년의 베를린 대회에 이어 이번에는 이스탄불에서 열렸으며 7
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린 컨벤션 기간 중에는 UIA가 3년 프로젝트로 집행
한 Celebration of Cities 전시, 이스탄불 컨벤션 집행위원회가 주관한
Extreme 전시 등을 비롯한 각종 자재 전시회와 수 많은 Work Shop이 열
렸다. 이 대회의 주제인 "Cities-Grand Baazar of ArchitectureS"라는 주
제 아래 마련된 토론의 장(Forum, 'market place')에서는 세계도시의 축제
(Celebration of the World Cities), 도시의 건축과 생활(Architecture and



소피아 성당

Life in Cities), 도시의 건축(Architecture of Cities) 등 3개의 주제별로 나뉘
어 열린 강의와 토론이 벌어졌다.

이번 컨벤션에는 특히 많은 'Star 건축가'가 keynote speaker로 초청되
었다. 제한된 컨벤션 기간 때문에 동시에 열리는 강의가 많아 모두 참석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이었다. 그래도 미리 꼼꼼하게 검토하여 준비한 시간표에
따라 여러 건축가의 강의에 참석하였다. 참석했던 강의 내용은 정리되는 대
로 관련 단체 정보 매체를 통해 회원 여러분께 전할 예정이다.

Ando Tadao, Ken Yeang 등 소위 인기가 높은 건축가들은 뻣뻣한 일
정으로 움직이는 탓인지 혹은 밀리는 강연 요청 때문인지 지난 10년 동안
해 오던 강의 내용을 순서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되풀이 하여 많은 사람들
의 빈축을 사는가 하면, Zaha Hadid나 Ando Tadao는 청중들이 열광적으
로 몰려들어 마치 Rock Star의 Recital (이나 사이버 종교 지도자의 종교적
모임)에 몰려온 듯한 느낌이었다. 이에 비하여 Robert Ventury, Denise
Scott Brown Ventury, Moshe Safdie 등 세 건축가들은 'Cities: Grand
Baazar of ArchitectureS'라는 은유적인 주제가 내포하고 있는 개념인
plurality, unity in diversity, competition in solidarity and festivity,
chaos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준비한 강의를 정확히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
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매우 대조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Rem Koolhaas, Dominique Perrault는 사전의 연락도 없이 아예 나타나지
도 않아 강의실 가득히 모여서 시작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2,500여명의 청중들을 크게 실망 시키기도 하였다.

Peter Eisenmann 강의에는 김지덕, 이근창, 이영수, 심재호, 최재희 교
수 등이 참석하였다. 이 강의에서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Peter Eisenmann
이 자신을 포함하여 Zaha Hadid, Rem Koolhaas 등 소위
Deconstructive 건축가들은 이제는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재미 있었던 것은 이 내용을
전해 들은 Robert Ventury가 "그 사람이 이제는 deconstructive 에 싫증이



UIA 개회식 전경

난 모양이로군.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가 된 모양이지"라고 혼자 중얼거 리듯이 내 뱃터 말이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UIA 컨벤션 참여가 아주 미미하였던 것에 비하여 이번에는 여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건축계의 관심과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대견하고 자 랑스러운 마음이었다.

국가관에 전시된 청계천 프로젝트는 전체에서 가장 세련된 전시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질문을 하는 등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끌 었다. 이와 병행하여 열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황기연 박사의 청계천 프 로젝트 강의는 매우 세련되고 훌륭한 강의였는데 우연하게도 인기 건축가의 강연과 겹치고 흥보가 부족하였던 탓으로 청중이 적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 러운 일이었다. 이러한 특별행사는 주최측의 카다로그나 프로그램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고 따로 전단지 배포하거나 파티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미리 생각하지 못한 것은 큰 실 책이었지만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린 뒤였다. 이후의 행사를 위하여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여야 할 일이다. 흥익 대학교 최재희 교수는 'Within the four Gates of Seoul: A Continuum of Autocratic and Natural Forces' 라는 제목으로 시대에 따 라 변모하는 서울의 모습과 이 변화에 영향을 미친 정치·사회적인 요인과 자연의 영향에 대하여 발표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기회를 전기로 삼아 많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국제무대에 진출하여 한국을 알리고 한국건축 의 위상을 높여 주기를 바란다.

UIA 시상식에서는 'Celebration of Cities'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학생부분 제4지역 대상을 받은 부산 동아대의 신지원, 이두호, 김동희에 대한 시상식 이 있었으나 예산 관계로 이들이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여서 서운하였다(모 든 수상작은 UIA Webpage, www.uia-architectes.org 에 올라있다) 이어서 열린 Extreme 공모전 시상식은 중국의 독무대라고 할 만큼 중국이 여러 분야의 상을 휩쓸어 이들의 눈부신 발전을 실감하게 하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미 90년대 중반에 건축교육인증원을 설립하고 건축교육의 질을 높 이기 위하여 노력한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Extreme 공모에서는 우리나라 학생으로는 유일하게 흥익대 대학원의 박준영군이 학생부분 4지역 상을 받

게 되어 매우 자랑스러웠다. 재능이 있는 우리 건축사(가)들과 학생들도 이에 자극을 받아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제공모전에 참여하여 우리 건축을 국제적 으로 알리고 소위 Star 건축사(가)도 나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제1회 공모전에 이어서 제2회 Celebration of Cities 공모전이 2005년 11 월에 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제1회 공모전은 대부분 '역사적 도시', '교 외의 대규모 주거단지', '열악한 주거' (precarious dwelling, shanty house),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제2회에서는 위의 주제에 더 하여 'The attractive city, the welcoming city' 와 'Mobility' 를 중심 주제 로 추가한다. 이번 공모전은 완전히 web으로만 진행될 것이며 www.celebcities2.org 에 들어가면 공모전 예고안내문을 볼 수 있다.

마지막 날 메인 홀에서의 간단한 폐회식으로 5일간의 큰 행사는 끝이 났 다. 저녁 때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서 열린 Farewell Dinner에는 이상림 과 조성중 부부가 참석하였다. Farewell dinner는 시작하자마자 한없이 계 속되는 여러 정치가들의 한결 같이 기나긴 축사가 계속되어 미국 돈으로 77 불이나 되는 비싼 요금(?)을 내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 였다. "이 세상에는 정치가들이 싫어하는 마이크로폰은 하나도 없다"는 우스 개 말도 있지만 특히 터키의 정치가는 그 연설이 너무 길어 보기에 매우 민 망한 모습이었다. 시작하지 거의 3시간 만에 나온 음식도 너무 간소하여 참 석자들의 불평이 많았지만, 식사 후 아간 조영 아래에서 박물관에 전시된 알 렉산더 대왕의 석관을 비롯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유물 전시를 돌아 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참석자에게 특히 인상 깊은 경험이었다.

총회는 컨벤션에 이어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 되었으며 심재호, 이상림, 이준석, 조성중(UIA 4지역이사) 등 4명이 우리나라의 공식 delegate로 또 김지덕, 이근창, 이영수, 최재희는 Observer로 참석하였다. 총회는 의제 (Agenda) 채택과 신입회원 가입 승인으로 시작되어 회장단 보고, 각 위원회 보고, 임원선거, 2011년 UIA 총회 개최지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 되었으며 그 중 중요한 의결사항은 별첨으로 정리하였다.



UIA총회에 참석한 우리협회 대표단(심재호 국제위원장, 이근창 부회장, 이의구 참석 대표단장, 이영수 이사)



UIA총회장 전경

PPC(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 건축실무위원회)와 UIA Accord 는 우리의 관심사 중의 하나인데 지난 3년 동안 아래와 같은 여러 가이드 라인과 부속도서¹⁾ (Accord Policy)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채택되었다.

1. UIA Accord Recommended Guidelines

- A. Policy on Professional Bodies
- B. Policy on Scope of Practice
- C. Policy on Forms of Practice

2. UIA Accord Policy

- A. Policy on Building Project Delivery
- B. Recommendation for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PPC, Work Program 등은 모두 중요한 사안들이지만 최근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은 건축교육인증 시스템 (UNESCO–UIA Architectural Education Validation System)과 계속 교육 (CPD, Continuing Practice Development)에 관한 것이다.

UNESCO–UIA Validation System은 이미 지난 2003년 베를린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나 기대하였던 UNESCO의 예산지원이 중단되었고, 프로그램의 인증이나 인증원의 인정을 위한 실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다른 기존 인증시스템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실사 작업의 실행계획은 지난 3년 동안 답보 상태를 계속하고 있었다. 미국의 AIA는 이 답보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 멕시코의 비야에르모사 이사회에서 기존 인증원의 협의회를 결성하지는 새로운 제안을 하였고 이사회는 이 제안을 절대 다수로 승인하였다. 이 협의회는 기존의 NAAB, RIBA 등을 위시한 9개의 기



최재희 국제위원장 발표

존 건축학 교육인증원들이 모여 상호인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지는 것으로 현존하는, 공학교육인증원의 상호인증협약²⁾ (Washington Accord)의 형식을 모델로 한 것이다. 제안서에 의하면 2006년 1월 UNESCO–UIA, CAA(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 그리고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캐나다, 중국, 한국 등 7개 나라의 인증원 등 모두 9개의 '이미 설립되어 있는(Established)' 인증기구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이 인증원들은 5월에 워싱턴에 모여 참여 건축학 교육 인증원의 상호인정에 대한 원칙과 절차 등에 관하여 협의(conference)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초청대상이 9개 인증원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협의회의 초안³⁾은 새 회원국이 가입하려면 2개 이상의 회원단체의 추천을 얻어 전체 회원국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제시하여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다수의 나라들이 이 제안을 반대하고 모든 논의는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원점에서 새로 논의를 하지는 제안은 AIA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아니고 별도의 제안으로 채택하기로 결정되어 미국의 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많은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인증원도 이 워싱턴 회의의 초청대상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이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Established system' 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도 워싱턴 회의 전까지는 실제로 인증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며 또한 인증실사 내용과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UNESCO–UIA System의 규정⁴⁾에 따르면 기존 인증원이 인정 (Recognition)을 받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UIA실사단은 인증원 자체뿐 아니라 그 인증원이 인증한 3개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실사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신규 인증원의 경우 UIA 실사단이 파견되어 해당 인증원에 대한 실사 뿐 아니라 3개의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도 실사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안된 워싱턴 회의도 이 규정을 따를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는 다른 UIA System의 인증위원(혹은 다른 외국 인증원 실사단원)이 참여하게 되므로 우리의 인증과정이 공정하고 철저하며 또한 객관적이고 투명하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고 있다.

총회 마지막 날에 있었던 임원 선거의 결과, 회장에는 조그만 섬나라인 Mauritius의 Gaetan Siew가 3명의 후보자를 많은 표차로 물리치고 당선하였고, 사무총장에는 스페인 출신의 Jordi Farrando가 선출 되었다⁵⁾. 두 사

1) 이 도서의 원문은 입수되는 대로 총회의 회의록(agenda 와 resolution)과 함께 모두 건축가협회 Website에 수록할 예정이다. www.kia.or.kr로 들어가서 <international Info>, <UIA자료>를 차례로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2) 공학인증원 상호인증 협약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등 12개국 등이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3) 이 초안 역시 입수되는 대로 건축가협회 Website www.kia.or.kr에 수록할 예정이다.
 4) UNESCO–UIA Validation System, ver. 7(March 2002), IX.1. Recognition of Validation System, 참조
 5) 새로 구성된 UIA 집행 기구인 회장단 회의(Bureau Meeting)과 이사회 (council meeting)의 명단은 첨부에 수록되어 있다.

람 다 젊고 매우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PPC, WTO 등 현
실적인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온 것으로 미루어 앞으로의 UIA 활
동은 매우 실질적인 방향으로 선회될 것이 예상된다.

또 2011년 UIA 총회의 장소로는 일본의 동경이 남아공의 제2 도시인
더반(Durban)을 물리치고 선정되어 2008년의 토리노 대회를 계승하게
되었다. ㉮

중요의결사항

1 신입회원국 가입 승인

- 1.1 신입회원국 : Barbados, Belarus, Benin, Ethiopia, Kyrgyzstan 등 5개국
- 1.2 재가입 회원국 : India, Iran, Pakistan, Senegal, Sudan
- 1.3 임시회원국 : Brunei, Chad, Mauritania, Niger, Sierra Leone
- 1.4 자격정지 회원국 : Venezuela, Nicaragua, Panama

2 UNESCO-UIA Architectural Education Validation system

- 2.1 UNESCO-UIA Architectural Education Charter 수정안 통과
- 2.2 AIA가 제안한 인증원 협의회(An Agreement Protocol for reciprocal recognition between Institutions for Validation/Accreditation of Architectural Studies) 승인
- 2.3 포르투갈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맹렬한 이의 제기로 이와는 별도로 비 참
가국들이 모여 소위 Round Table Meeting을 열어 논의할 것을 의결함.

3 Continuing Education

- 3.1 미국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UIA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킬 것을
의결함.
- 3.1.1 UIA, ASIA, CSCAE(스페인)이 GPO를 구성하고 AIA가 운영의 책임을
맡기로 함.(Operator)
- 3.1.2 모든 계속교육은 자국어로 시행할 것을 원칙으로 함.
- 3.2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반대를 감안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Round Table
Meeting 열 것을 의결함.

4 2006~2008 회비

- 4.1 기준 : UIA 예산, 건축가 수, PPP
- 4.2 7,126명 기준 6,095.85 (전회기 회비는 5,090)
- 4.3 우리나라의 실제건축사 수 : 약 14,000 명 정도로 보고 예정

5 임원진 개선

- 5.1 회장단(Bureau)
 - 회장 : Gaetan Siew, Mauritius, 제5지역
 - 사무총장 Jordi Farrando, Spain, Barcelona, Spain, 재무관 Don Hackl,
USA(재선)
 - 부회장 Region I : Giancarlo Ius, Italy
 - Region II : Martin Drahovsky, Slovakia, 2nd VP
 - Region III : Mauricio Rivero Borrell, Mexico

Region IV : Louise Cox, Australia, 1st VP(재선)

Region V : Seif Alnaga, Egypt

5.2 이사진(Councilor)

- Region I : Germany, Nina Nedelkov, (신임)
- France, Jean-Francois Quelderie
- Spain, Muir Soteras
- UK, Jack Pringle, (신임)

Region II : Greece, Elizabeth S

- Russia, Andrei Kaftanov, (신임)
- Slovenia, Tomaz Kancler
- Turkey, Suha Ozkan

Region III : Brazil, Simon Roberto

- Columbia, German Suarez
- Costa Rica,
- USA, Jim Scheeler, (신임)

Region IV : China, Song Chunwha

- Joseph Kwan, Hong Kong, (신임)
- Kazuo Iwamura, Japan
- Sungjung Chough, Korea

Region V : Cameroon, Laurence Ngosso, (신임)

- Cote d'Ivoire, Francis Sossah, (신임)
- Nigeria, Donald
- South Africa, Patricia Emmett, (신임)

6. 2011 Congress 장소 : 동경이 선정됨, 경쟁도시 Durban, South Africa

7. UIA 사무실 이전에 대한 의결

8. UNESCO-UIA 교육한장 보완

9. PPC : 이사회에서 승인한 Policy on Building Project Delivery System,
Policy on Professional Bodies, Policy on Scope of Practice, Policy on
Form of Practice, A Recommendation on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등 새로운 지침서 발표

9.1 Accord Policy를 연구하여야 함.

10. 2차 Celebration of Cities 공모전 발표